세 부자의 동상이몽

(눅15:11-32)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 부자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세 부자의 동상이몽.
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둘밖에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지만, 둘밖에 없어도 아버지 마음에는 바람이 잘 날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으로 돌아오게 될 유산을 앞당겨서 아버지께 강권하여 할당받은 뒤에, 그것을 밑천 삼아서 멀리 떠나 타국에서 사업해서 자수성가 하겠다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쫄딱 망해서 되돌아온다는 얘깁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 집으로 돌아온 허랑방탕했던 자기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여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서 아버지한테 죽자고 대들며 싸우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짧은 비유 속에서 인류를 관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시간시간

켜켜이 쌓여가지고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별의별 나라의 별의별 풍습과 문화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다 이 탕자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이 세 부자의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볼 때, 아들들이 아버지를 볼 때,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불행한 관계였다 이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꿈꾸는 게 다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내용이 다 달랐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경우, 아버지를 누구라고 보고 있었느냐?
아버지는 그로부터 독립해야 될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로워지고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건립해서 한번 멋지게 내 인생을 펼쳐보려면, 빨리 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런 존재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본문에 보면 이제 다 망해 먹고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하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 집 밖에서 내 인생을 만들 때를 비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가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한 내 인생을 건립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집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지요.
돌아오게 된 동기도, 사실 이 비유 그대로라면, 이 비유는 세상사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예로 드시는 거지만, 비유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유의 초점은 돌아왔다는 데에 있는 겁니다, 실제 있을 수 있는 사건 속에서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주님이 뽑아내시는 요소는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하여간, 이런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관점이 있고, 그러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내 것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미래의 내 것이 될 모든 재산, 이제는 동생의 몫은 다 빠져나갔으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유대법상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는 지금 내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밑천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걸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이 첫째 아들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성공이 앞당겨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다 성공은 빨리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늦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즉, 아버지가 죽는 겁니다.
이것 참, 적나라한 인간의 속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부모님들이 재산이 없는 가난한 분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았을 때, 형님들이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저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티끌 하나 없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하, 이거 안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면 그런 생각이 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얼른 억누를 수는 있지만, '아이쿠, 이게 사람의 생각이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저 재산이 내 것이 된다는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 수 있느냐?'고 하지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는 그런 가난한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의 짐승 된 모습을 내가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 끝까지 있어야 될 존재들로 보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은 빨리 아버지 슬하를 벗어나야 내가 자유롭게 나의 꿈을 펼쳐서 나름대로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아버지를 벗어나야 될 분으로 생각했고, 첫째 아들은 그 속마음을 깊이깊이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 된다고 아버지 곁에 남아있었던 그런 경우였고.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과 전혀 상관없이 이 아들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아들들을

나와 연합해서 함께 있어야 될 존재로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 잔치를 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들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둘째에 대해서 갖는 형의 관심은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동생 자체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관계 맺음이 없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갔고 아버지의 살림을 날려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살림을 날려버린 것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연합해서 살게 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런데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항상 함께 한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었던 거예요.

자,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인 이 탕자가 독립 밑천으로 받아가지고 간 것, 독립 밑천이 있어야 아버지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밑천이 뭡니까?
그게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잃은 양 얘기했어요.
어디로부터 잃어진 것이냐? 천국으로부터 잃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죄였어요, 천국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인이 미국에 있으면 마음도 미국에 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아버지가 애인이어야 되고, 주님이 애인이어야 돼서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마음이 안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이 독립을 하려면 맨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려면 그 밑천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가까이 와있는 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밑천은 이 몸뚱이입니다.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몸에 붙어서 하늘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밑천이라서 이 몸을 가지고 인간세상 속에서 나를 대신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깨닫고 나와 관계할 때 몸을 보면서 나와 관계를 합니다.
실지 몸은 내가 아니에요, 마음이 '나'고, '나'라는 의식이 생긴 그 마음이 '나라'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몸을 밑천 삼아서 몸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가면서 이 몸을 바탕으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일도 하고, 이 몸으로 대통령도 되고, 의사도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관계하려면 몸을 보고 관계하면 되게끔 내 인생을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강을 잃으면 내가 하늘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밑천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의 밑천이 내 몸이라는 겁니다.
그 몸을 밑천으로 삼아서 인생을 한번 잘 꾸려보려고 몸을 내 마음으로 붙잡아가지고, 마치 내 손에 칼을 붙잡고 볼펜을 붙잡듯이 내 몸을 장악해 움직여가면서 내 뜻대로 인생을 펼쳐나가고 진행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뭐가 다릅니까?
몸을 밑천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꾸리고 싶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밑천으로 펼쳐나가야 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일견 바라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몸을 밑천으로 내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럽니다.
몸은 나가 아니지만 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내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게 뭐가 문제냐?
굉장한 문제입니다.

몸을 밑천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갈 때 장애물이 생기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난관에 부딪히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간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의사가 고맙습니까?
그런데 의사를 찾아갈 때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마음의 바람은, 다시는 이 의사를 찾지 않게 되기를 바라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생애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멋지게 완성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을 때와 똑같이 내가 앞으로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옆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서 아버지 옆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밑천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이 땅 위에서 펼쳐나갈 때, 내 인생을 잘 꾸리고 싶어서,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부딪히는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나의 멋진 삶, 완성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깁니다.
다시는 의사를 찾지 않아도 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는 것과 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안 필요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난관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상황은, 하나님을 다시는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슬픔도 없는 천국만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 인생의 국면이 오면 좋겠다는 바람과 똑같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을 붙잡고 있으면서 몸을 밑천 삼아서 그 밑천 위에다가 인생을 멋지게 만들고 싶은 한, 절대로 아버지에 대해 올바를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몸을 버려야 돼요, 몸을 버린다는 것은 몸 때문에 생긴 모든 관계를 버린다는 것이고, 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버린다는 것이고, 몸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버지 자신으로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마음이 몸에 대해 죽는 겁니다.
몸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몸 때문에 생기는 모든 관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고, 몸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조차도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죽는 게 십자가사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과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해 죽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로써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탕자처럼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지 않더라도, 기껏 아버지를 찾는다고 해봐야, 내가 몸을 밑천으로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잘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아버지는 빨리 없어져야만 되는 존재, 아버지를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이 완벽해지면 빨리 아버지를 버려야 되는 상태, 마치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의사를 찾는 병자가 다시는 의사를 찾지 않는 건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없어져 주는 것이 좋은 그런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부모나 처자, 형제자매, 나아가 목숨까지 미워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몸을 밑천으로 이 땅 위에서 한번 멋진 인생을 살겠다는 비전 계획 소원 따위, 다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붙잡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붙잡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몸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전개는, 우리 마음이 상관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또 바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바라고 계시고, 계획할 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너무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있고…
자꾸 내가 계획한 것을 아버지를 통해 이루려고 하지 말고, 아예 계획조차도 나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고, 소원조차도 없애버려서 아버지가 이 몸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되게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몸을 밑천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자 이거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연합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세 부자의 동상이몽, 우리에게서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굳이 전지전능하실 필요도 없고, 무소부재하실 필요도 없고, 많은 것을 내게 주셔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뱅이 아버지도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